

[바둑]

병역혜택 축소... 젊은 프로기사들 “나 어떡해”

바둑도 스포츠로 분류... 기존 혜택 대폭 사라져
올해부터 응씨배·후지쯔배 1, 2위 대체복무 없애
아시아게임 우승·올림픽 3위 이상자만 혜택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 등록돼 기사들 병역 혜택은 줄었습니다.”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승인돼 대표팀 운영과 훈련, 메달 획득에 따른 지원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후지쯔배 등 일부 대회에 있던 병역 대체복무 혜택은 되레 사라졌다.
국내 최연소 기사 박정환(16) 4단이 지난달 이창호, 백홍석을 잇달아 물리치고 원익배 십단전에서 우승을 했다. 이창호(14세·1989년 제8기 KBS바둑왕전 우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우승 기록이다.
시상식에서 박정환은 “다음에는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후지쯔배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하지만 군 입대로 인한 공백을 앓고고 바둑에 열중해왔던 그의 아무런 꿈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채 머물기도 전에 깨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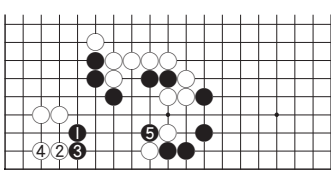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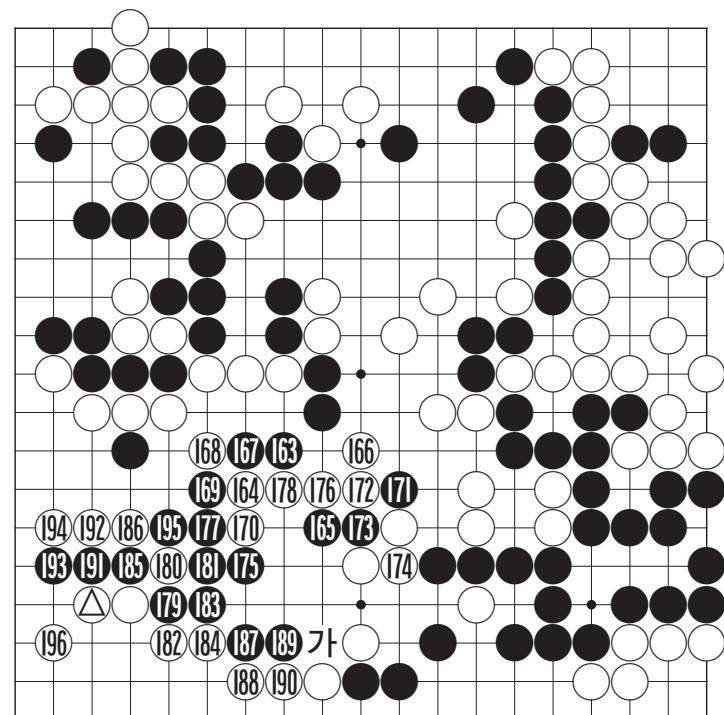
일부 국제대회에 입상하면 혜택을 줬던 프로바둑 기사들의 병역 대체복무가 사라졌다. 사진은 지난 4일 대한바둑협회를 정기대명기단체로 승인했던 대한체육회 제25차 이사회 모습. <사이버으로 제공>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그동안 응씨배와 후지쯔배 우승 및 준우승자에게 주어지던 병역 대체 복무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이다.
바둑을 체육으로 간주, 다른 체육 종목처럼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아 게임 우승 및 올림픽 3위 이상의 경우에만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바둑계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다. 한국기원은 그동안 병무청과 협의를 벌였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바둑의 병역혜택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세계 바둑계 지존으로 군림하던 이창호의 군 입대 문제로 여론이 시끄러웠다. 병무 당국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당시 열리고 있던 국제시 기전인 동양증권배, 후지쯔배, 응씨배 등 3개 대회 결승 진출자에 대해 대체 복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계 대회의 변화도 대체 복무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1996년 삼성화재배 LG배 등 한국이 주최하는 2개의 대형 국제 기전이 신설된 것을 비롯, 춘란배 도요타텐소배 등 많은 국제 기전이 새로 만들어졌고 반면 동양증권배는 1999년 중단됐다.
정작 더 규모가 큰 한국 주최 기전 입상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기현상도 생겼다.
한국기원은 삼성화재배와 LG배를 대체복무대상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응씨배와 후지쯔배를 국내 대회로 대체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대체 복무 대신, 국군 상무부대에 바둑팀을 신설하거나, 공군 게임 특기병처럼 프로 기사들이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바둑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5호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죽기 아니면 살기 白 선계성 6단
최강부 1회전 10보 (163~196) 黑 노기철 5단



<참고도>

백 △가 최심의 말뚝박기로 이수로 인해 좌하귀 일대가 거대한 실원으로 변해버렸다. 흑은 그 대가로 좌변의 백 석점을 잡았으나 이것은 그야말로 새밭의 피에 불과하다.
노기철 5단도 실패를 절감하고 흑 163으로 움직여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초토화 작전으로 나왔다. 이 수로 흑이 164로 싸우는 수비가 좋아서 실패하지 않은 수가 되었다.
흑의 고민은 이 백 모양을 조금만 파괴해 가지고는 안된다는데 있다.

최철한·박영훈, 후지쯔배 한국대표 합류

최철한, 박영훈 9단이 후지쯔배 한국대표에 합류했다. 한국기원은 20일 “지난 16일 후지쯔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국내선발전 최종국에서 최철한, 박영훈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최철한은 이날 윤준상 7단을 71수 만에 불계로 눌렀고, 박영훈도 조한승을 217수 만에 불계로 꺾었다.
최근 열린 제10회 맥심커피배 결승전에서 맞붙어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 둘은 후지쯔배에 나란히 출전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후지쯔배에 한국은 전기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이창호 9단이 대회 시드를 배정받아 출전하고, 국가시드 5명 등 총 6명의 기사가 후지쯔배에 나선다.
5명의 국가 본선 시드를 받은 한국은 국가시드 50%의 비율로 랭킹 상위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랭킹 1위인 이세돌 9단과 3위 강동원 9단, 4위 원성진 9단 등 3명이 자동출전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두 명은 2월 한국랭킹 5위부터 12위까지 총 8명의 기사가 출전한 국내선발전은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2회전까지 치러 최종 박영훈, 최철한이 대표로 선발됐다.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중국을 지난 대회 우승자인 구리 9단과 3위를 차지한 장하오 9단이 대회시드를 배정받아 출전하고, 국가시드 5명은 아직 미정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일본은 3대 기전(기성, 명인, 본인방) 타이틀 보유자인 아마사타 게이코, 장쉬, 하네 나오키에게 시드를 배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사’ 최철한 4년만에 우승 트로피

맥심배 박영훈 꺾어 안았다.
지난 2005년 제10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4년 만에 대회 정상에 올랐다.
최철한은 이날 경기 초반부터 특유의 전투 바둑을 두며 승기를 잡았다.
대회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전이며 우승상금은 2천 5백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



왼쪽부터 박시열·강창배·김미리·안성준·황진형 조단.

“정식 프로기사 됐어요”

한국기원, 면장 수여식 가져
새내기 바둑기사들이 입단자 면장을 받고 정식 프로기사가 됐다. 한국기원은 지난 17일 2008 하반기 입단자 면장 수여식이 가졌다.
지난해 하반기에 입단한 안성

준(제116회 입단대회 내신입단), 황진형(제9회 지역연구생 입단대회), 김미리(제34회 여류 입단대회) 강창배(제117회 입단대회), 박시열(제117회 입단대회) 등 다섯 명에게 (재)한국기원 한상열 사무총장이 면장을 수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

합격은 김영에서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3월 2일

= 정확한 합격 예약!! 無等과 만나세요. =

7.9 공무원 對備

금 전문

9급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국가+지방직

수직이론반 (영어) 10기 가능직

소방직·사상차다모집예정

3회 2일(주·아침반 모집)

개강

3월 2일

서울 903, 부산 251, 대구 100, 인천 383, 광주 119

대전 105, 울산 66, 경기 885, 강원 180, 충북 182

충남 348, 전북 208, 전남 238, 경북 214, 경남 316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가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장" 전원 서울에서 출강!

광주고시학원

3월 2일 (첫전도 시작)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